

CORPORATE ANALYSIS REPORT OF NAVISTOCK

CARN

기업분석보고서

넥스텍 [065500]

Issue. 횡령/배임의 흔적들
(클라스타와 넥스텍, 그리고 스멕스, 오리엔트바이오)

| | |
|------------|---------------------|
| 기업명 | 넥스텍 [065500] |
| 작성자 | 네비스탁 기업평가팀 |
| 작성일 | 2011년 7월 15일 |
| 52주 최고가 | 3,495 원 |
| 현재가 | 520 원 (액면가 500원) |
| Report No. | Q065500-1114C-D0001 |

■ Caution

본 보고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보고서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이며, 네비스탁의 동의 없이 고객 여러분 자신 이외의 다른 목적 (제3자에게 제공, 독자적인 가공/복사 등)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횡령/배임의 흔적들 (클라스타와 넥스텍, 그리고 스맥스, 오리엔트바이오)

코스닥 상장기업인 넥스텍, 클라스타, 스맥스, 그리고 코스피 상장기업인 오리엔트바이오까지 수년에 걸쳐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기업 존폐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횡령/배임 혐의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추적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등장 기업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보자.

① 클라스타 [037550]

- KOSDAQ 상장기업, 거래정지/관리종목
- 舊 (주)뉴월코프
- 전 경영진 추교진, 정춘균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임을 확인

② 넥스텍 [065500]

- KOSDAQ 상장기업, 거래정지/투자주의 환기종목
- 舊 대진공업(주)
- 현 대표이사(추교진)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따른 피소 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태에서 경영권 변동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③ 스맥스 [060910]

- KOSDAQ 상장기업
- 현 대표이사(장병은)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따른 피소 확인 (고소인 넥스텍 대표이사 추교진)

④ 오리엔트바이오 [002630]

- KOSPI 상장기업

1) 횡령/배임의 출발점, 클라스타

2008년 5월 당시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최대주주였던 안중화는 보유주식 6.88% 및 회사의 경영권을 정춘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약 51.4억원.

그리고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경영권을 획득한 정춘균은 같은 해 7월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의 지분 약 94%를 인수하게 된다. 인수대금은 약 217억원. 2008년 반기 기준으로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자산 총계가 약 161.8억원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217억원에 인수하는 결정은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에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지분을 양도한 자산양도자는 다음과 같다.

[정춘균((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추교진((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이사), 김해식, 박의환, 김미자, 권재란, 이철훈, 이상훈, 곽기학, 최경모]

그런데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8년 7월 8일 : 이사회 결정

2008년 7월 8일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2008년 7월 9일 : 매매대금 약 217억원 완납

즉, 이사회 결의가 있자마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에 217억원이라는 막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완납한 것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산양수도 계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당시 요약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가 217억원에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사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계약 당시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요약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2007년 | 1,479 | 619 | 860 | 770 | 408 | 53 |
| 2008년 | 864 | 57 | 807 | 551 | 377 | 31 |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는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가 인수를 결정하기 직전인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약 15억원에 매출 4억원, 당기순이익 5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취득하고 매매대금 217억원을 완납한 2008년 7월 9일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경영 활동이 발생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약 148.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2008년 7월 8일에 결정된 이 제3자배정증자의 납입일이 바로 2008년 7월 9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긴급하게 결정된 제3자배정증자의 목적은 타법인주식 취득 자금을 위한 발행사채 상환이었으며, 당시 제3자배정증자에 참여한 11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 김해식, 박의환, 김미자, 권재란, 이철훈, 이상훈, 곽기학, 최경모]

상당히 낮은 이들 제3자배정 대상자들은 다른아닌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에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매각한 자 산양도자 명단과 일치하고 있다. (정종근 제외)

또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당시 신주 발행가액이다. 제3자배정증자를 위해 발행가액을 산정한 결과 이론발행가액은 약 965원이었으나 실질 발행가액은 2,5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론 발행가액에 대한 실질 발행가액의 할증율은 차그마치 259%에 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발행가액의 제3자배정증자가 결정된 지 하루만에 148.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08년 7월 16일 정종근은 정춘균, 추교진을 특수관계자로 하여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지분 29.04%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은 특수관계자로서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이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의 금전거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출 : 200억원 (= 51.4억원 (경영권 양수도 대금) + 148.6억원 (제3자배정증자 대금))

수입 : 217억원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매각 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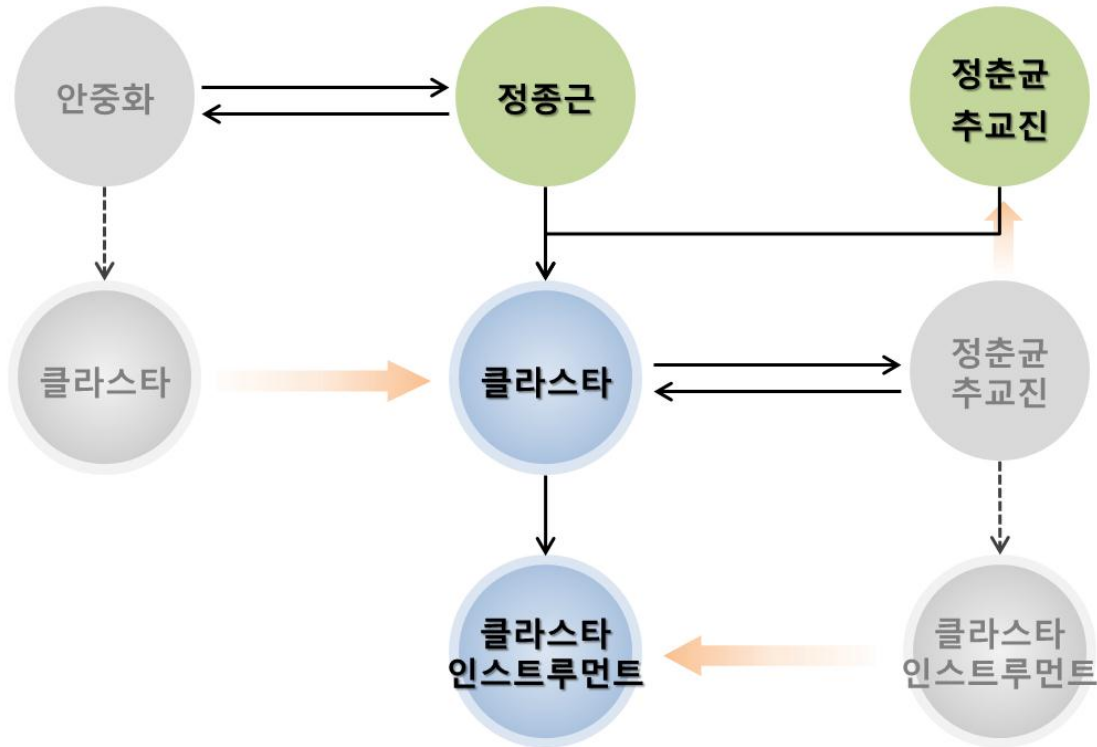
사실상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지분 및 경영권을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에 넘겨주는 대신에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의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주)뉴월코프(현재 클라스타)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지배력 역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8년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춘균, 추교진이 신규로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기존 이사진 일부가 해임되었고, 상호 역시 (주)뉴월코프에서 (주)클라스타로 변경되게 된다. 여기서 정춘균, 추교진의 이력에 대한 간단히 언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생년월일 | 현직 |
|-----|-----------|---|
| 정춘균 | 1963년 12월 |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대진공업(주) 연구소장 |
| 추교진 | 1971년 12월 |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

당시 정춘균은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과의 연결고리는 뒤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3일에 클라스타의 대표이사는 정종근에서 정종근, 정춘균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써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은 완벽하게 클라스타를 장악하게 된다.



앞서 클라스타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약 217억원에 인수한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클라스타의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내용]

(단위 : 천원)

| 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평가차액 |
|---------------|--------|------------|-----------|-------------|
|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 97.02% | 22,197,350 | 5,519,641 | -16,677,709 |

즉, 08년 7월에 취득한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가치는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약 1/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며, 과연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취득을 결정한 경영진이 판단이 현명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거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2) 횡령/배임의 뗏에 걸리다, 넥스텍

2009년 2월 클라스타는 문제의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재매각하게 된다. 클라스타와 대진공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대상 | 수량(지분율) | 양수도가액 |
|---------|---------|---------------|-------------------|-------------------------|
| 대진공업(주) | (주)클라스타 |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 143,500주 (90.39%) | 22,837,399,500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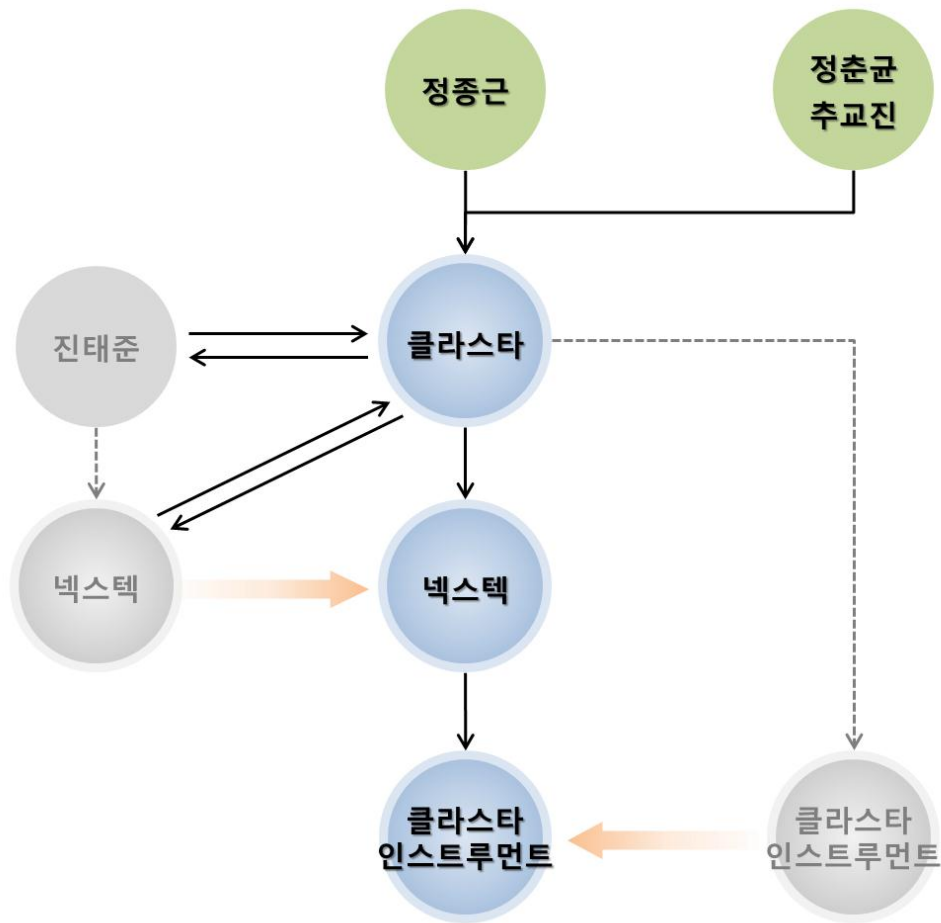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기업가치가 6개월만에 취득가액의 1/4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또한 재매각 한 것을 통해 과연 클라스타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취득한 것이 순수하게 경영의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이 클라스타와 마찬가지로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22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취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클라스타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체결된 거래이기 때문에 대진공업(주)이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의 가치가 1/4 토막으로 급감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자산총액이 약 370억원, 자본총액이 약 226억원임을 고려해 볼 때,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이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인수에 자그마치 228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이 클라스타로부터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인수하게 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클라스타가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지분 30.31% 및 경영권을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다. 클라스타가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대상 | 수량(지분율) | 양수도가액 |
|---------|-------------------------------------|---------------------|------------------------|-------------------------|
| (주)클라스타 | 진태준 외 1인 * 대진공업(주)의 대표이사/최대주주 | 대진공업(주) 지분 및 경영권 | 1,925,866주 (30.31%) | 21,470,000,000 원 |

이로써 (주)클라스타는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넘기는 대신에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앞서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 등이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통해 클라스타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이다. 즉, 정종근, 정춘균, 추교진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클라스타에 매각함으로써 확보한 자산으로 클라스타의 지배력을 확보하였으며,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재차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산으로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정종근 등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를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비싼 값에 매각하고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으로부터 받은 (주)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매각 대금으로 다시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사냥해 온 것이다.

그리고 2009년 2월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춘균, 추교진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게 되며, 이로써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게 된다.

하지만 09년 중에 클라스타는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지분을 수차례 장내/장외에서 지속적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장외 매각은 09년 7월 약 60억원에 추교진, 이상훈(대진공업(주) 대표이사)에게 지분 약 6.95%를 매각이 유일하다. 하지만 매각한 이후에도 클라스타는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장내 매각을 통해 지분을 축소시킨 결과 2009년 10월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최대주주는 클라스타에서 이상훈(특수관계자 추교진 등 포함)으로 변경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대진공업(주)(현재 넥스텍)의 최대주주는 이상훈에서 추교진(특수관계자 이상훈 등 포함)으로, 그리고 대표이사는 정춘균, 이상훈에서 정춘균으로 변경되게 된다. 그 후 2010년 3월 사명을 대진공업(주)에서 넥스텍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정춘균 등의 주 활동무대는 클라스타에서 넥스텍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춘균, 추교진 등은 2010년 11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스맥스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3) 파국을 향해 치달다. 스맥스, 오리엔트바이오

당시 (주)스맥스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기업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그리고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넥스텍은 기존 (주)스맥스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17.4억원에 취득하고 의무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에 추가로 10억을 투자하여 약 27.4억원에 지분 25.95%와 경영권을 확보해 (주)스맥스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2010년 11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넥스텍 임원들이 (주)스맥스의 동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주)스맥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 당시 선임된 사내이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생년월일 | 현직 |
|-----|-----------|-----------------|
| 추교진 | 1971년 12월 | (주)넥스텍 수석 부사장 |
| 함부원 | 1970년 1월 | (주)넥스텍 전략기획실 이사 |
| 홍승민 | 1972년 1월 | (주)넥스텍 신규사업팀 이사 |
| 최태영 | 1969년 1월 | (주)넥스텍 전략기획실 부장 |

그리고 2011년이 되면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된다.

2011년 3월 10일에 (주)넥스텍의 대표이사는 정춘균에서 추교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3월 30일 (주)넥스텍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태현욱, 최태영, 김현태가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대표이사 역시 추교진에서 추교진, 태현욱으로 변경되었다. 즉, 태현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가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4월 1일, 클라스타는 (주)넥스텍의 잔여 지분을 전부 매각함으로써 클라스타와 넥스텍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그러나 2011년 5월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넥스텍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은 (주)넥스텍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란, 기업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양적/질적 기준에 따라 기업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최대주주의 변경,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하고 있다.

(주)넥스텍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세력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넥스텍은 2011년 5월 16일에 (주)스맥스의 경영권 및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이사 역시 추교진, 태현욱에서 추교

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태현옥, 최태영, 김현태는 2011년 6월 10일 현 대표이사(추교진)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되고, 동시에 이사해임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추교진은 (주)스맥스의 현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주)넥스텍의 임원들이 (주)스맥스의 경영진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넥스텍의 대표이사인 추교진이 (주)스맥스의 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넥스텍이 (주)스맥스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1년 5월 18일 (주)스맥스의 최대주인 (주)넥스텍은 법원에 (주)스맥스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장병훈(주)스맥스 대표이사) 등을 해임하고 신규로 이사진을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18일 당시 (주)스맥스 대표이사였던 장병훈은 (주)넥스텍 경영진으로서 (주)스맥스 이사로 선임되었던 함부원, 최태영을 특별관계자로 하여 20.19%의 지분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공시를 통해 밝히게 된다. 즉, (주)넥스텍이 (주)스맥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넥스텍 세력과 (주)넥스텍이 (주)스맥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세한 신규 세력간의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11년 7월 장병훈 등은 (주)스맥스의 지분 28.18%를 확보함으로써 23.98%를 확보한 (주)넥스텍과의 지분 경쟁에서 승리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주)넥스텍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경영개선자구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그리고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기존 추교진에서 KOSPI 상장기업인 오리엔트바이오로 변경되게 된다. 그리고 추교진은 오리엔트바이오의 특별관계자가 되어 공동으로 지분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경영권이 변동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 2011년 7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주)넥스텍과 함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랐던 이룸지엔지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주)넥스텍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주)넥스텍이 상장폐지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4) 그들의 남은 운명

클라스타에서부터 (주)넥스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정종근, 추교진, 정춘균이 현재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종근 [현 클라스타 대표이사/최대주주]

- 2010년 8월 횡령, 배임 및 가장납입 혐의로 피고소 / 검찰 조사 진행중

② 추교진 [현 넥스텍 대표이사 / 전 클라스타 이사]

- 2010년 6월 넥스텍 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고소
- 2010년 6월 클라스타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고소

③ 정춘균 [전 넥스텍 이사 / 전 클라스타 이사]

- 2010년 6월 클라스타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고소